

한일관계사학회 30년, 회고와 전망

손승철(강원대학교 명예교수)

1. 학회 창립

한일관계사학회 창립은 1991년 10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대마도종가관계문서 서계목록집』 발간이 계기가 되었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그 이듬해 1월 말, 일본 동경에서 일본 국회도서관·아사히신문사와 공동으로 심포지엄 및 순회강연회를 개최했다.

나는 당시 동경대학 사료편찬소에 1년간 객원연구원으로 유학을 하고 있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2월 초 이 행사에 참석했던 이원순 국편위원, 신재홍 편사부장과 하우봉·정성일교수가 메구로에 있는 나의 숙소(동경대 인터내셔널 로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두 나라의 한일관계사 연구현황에 대해 답소를 나눈 적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 끝에 한국에서 학회창립의 필요성이 거론됐고, 내가 곧 귀국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귀국 후 공식적으로 학회를 발족하기로 약속했다.

1992년 3월, 귀국 후에 나는 하우봉교수를 만나 학회 창립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하교수는 역사학회 중진들을 참여시켜 발족을 하자고 했고, 나는 순수하게 한일관계사 전공자들 중심으로 시작하자고 했다.

하교수는 내 의견을 받아들였고, 5월에는 대우재단에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던 『통신사등록』을 대상으로 독회신청을 하여 1년간의 지원을 받으면 학회 발족의 기초작업을 시작했다. 참여자는 나를 비롯하여, 하우봉·나종우·최덕수·김은숙·여박동·김동철·강창일·이훈·정성일·구선희·민덕기·유재춘·한문중·홍성덕·장순순·송한용 등 17명이다. 그야말로 학회발족의 개국 공신들이다. 윤독모임은 그 후, 1993년 5월부터 94년 6월까지 24회에 걸쳐 『交隣提醒』 윤독회를 했고, 2001년 2월, 국학자료원에서 역주본을 간행했다. 전공자들이 중심이 되어 학회가 발족하고 함께 윤독회를 거듭한 일은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이다. 그 후에도 윤독모임은 현명철·장순순·허지은·이승민·이상규 등 일부회원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우리 학회의 큰 학문적 저력의 기틀을 유지하며, 그 정체성을 유지해 가고 있다.

1992년 7월에 이들을 중심으로 강창일교수(전 국회의원 및 주일대사)가 재직했던 대전 배재대학교에 모여 학회 발족식을 했고, 학회 명칭을 ‘한일관계사연구회’로 정했다. 이러한

준비 끝에 드디어 1992년 9월 5일,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재단빌딩 18층 세미나실에서 제 1회 월례발표회를 했다. 첫 번째로 내가 ‘조선후기 교린체제의 탈중화적 성격’을, 두 번째로 홍성덕교수가 ‘조선후기 차왜의 등장과 외교실무운영’을 발표하고 토론했다. 그리고 발표회가 끝난 다음에는 길 건너 연세재단 빌딩 뒤에 있는 우미정에서 회식을 하면서 토론을 계속해갔다. 지금도 월례발표회가 끝나면 회식과 함께 이루어지는 2차·3차의 열띤 토론회는 이때부터 만들어진 우리학회의 전통이다.



〈학회 창립 기념사진, 1992,7 배재대에서〉

학회의 초대회장은 하우봉교수가 맡았으나, 하교수가 그 이듬해 연구년으로 일본 동경대학에 가면서, 내가 2대 회장을 맡았다. 내가 회장을 맡으면서 1993년 10월, 학회지 『한일관계사연구』 창간호와 《한일관계사논저목록》을 발행했다. 학회지 영문제호는 ‘THE KOREA-JAPAN HISTORICAL REVIEW’로 했다. 학회지를 발간하면서 학회의 회칙과 규정을 정비했다.

회칙 제1장 총강에서는 학회의 명칭과 목적, 사업을 명시했고, 회원자격과 기구, 임원, 재정 등에 관해 규정했다. 그리고 회칙은 1993년 8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규정에 의해 우리 학회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연구를 통하여 두 나라 사이의 올바른 관계사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그리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구발표 및 강연회, 학술지 및 연구 자료의 간행, 국내외 관련학계와의 교류, 기타 본 학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하도록 했고, 지금까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다.

연구발표는 1학기 4회, 2학기 4회의 월례발표회와 하계 동계 연수회를 지방을 돌며 개최했고, 횡수를 거듭할수록 한국사학계에서 차별성과 전문성을 담보한 굴지의 학회로 발전해 갔다. 1993년 8월에 회원 수는 38명으로 늘어났고, 전원이 한일관계사 내지 일본사 전공자였다. 2022년 8월 현재, 학회 회원은 교수 94명, 연구원 85명, 기관회원 22명, 기타 165명으로 총 366명이다. 그리고 모두가 유료회원이다.

학회 창립 1년 만에 학회지 『한일관계사연구』를 발간했으며, 창간사에서는 회원들의 증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창간사를 펴냈다.

“1992년 7월 「韓日關係史研究會」를 발족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도 많았다. 해방 후 5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지금, 이제야 비로소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는 자책감과 함께, 우리는 모여서 무엇을 어떻게 공부하여야 하는 가부터 논의하였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첫 번째 결실이 『한일관계사논저목록』이었고, 두 번째 성과가 학회지인 『한일관계사연구』의 창간이다.

돌이켜 보건데, 「韓日關係史」는 우리의 역사 현실과 늘 밀착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너무나 외면되어 왔다. 더구나 과거 한일관계사의 연구가 주로 일본인에게서 시작되었고, 그것도 식민사학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왜곡된 목적에서 출발하였던 만큼 그 문제점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東아시아 속의 한국사, 나아가 세계사 속의 한국사를 재구성해야 하는 지금, 우리의 역사연구는 그 전제가 되는 대외관계사 연구에 너무 미흡하였고, 이를 특수사로만 취급하여 한국사를 총체적으로 구성하는 데에 매우 소홀했던 것도 사실이다. 外政이 內政의 연장이며, 동시에 外政은 內政의 국제적 표현임을 상기할 때, 內政과 外政의 연구 어느 한 쪽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연구회의 대주제인 「韓國」과 「日本」의 역사적 숙명관계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해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양국은 여전히 대립과 갈등의 수렁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항상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이 사람들에게서 회자되고 있다. 共存의 時代를 준비해야 하는 지금,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래서 우리 「韓日關係研究會」에서는 「한국과 일본에 대한 역사연구를 통하여 두 나라 사이의 올바른 관계사 정립」을 목표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각자의 연구 분야에서 혼신의 열을 다 바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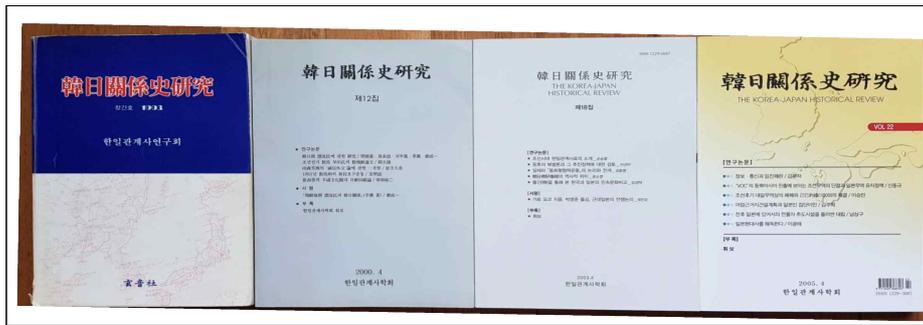
『韓日關係史研究』는 이러한 의지의 표현으로 창간하는 것이며, 이 뜻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영원히 지속되어 갈 것이다.”

학회가 제자리를 잡는 데는 무엇보다도 출판사의 도움이 컸다.

학회지는 처음에는 현음사에서 년2회(4월 10월)로 발간하였으나, 12집(2000.4)부터는 국학자료원, 18집(2003.4)부터는 논형, 22집(2005.4)부터는 경인문화사, 57집(2017.8)부터는 도서출판 온샘에서 발간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년 2회에서 년3회(4월, 8월, 12월)로, 2018년부터는 년4회 발간하고 있다. 1997년 3월에는 학회명칭을 「한일관계사연구회」에서 「한일관계사학회」로 바꾸었고, 학회지 『한일관계사연구』는 2006년 등재학술지가 되었다. 2003년 내가 두 번째로 학회장이 되었을 때 신동규 교수와 함께 작업을 하여 후보지가 된 지 3년 만의 쾌거였다.

한일관계사학회는 30년이 지난 그동안 201회의 월례발표회를 했고, 36회의 학술심포지엄을 했는데, 그 가운데 12회는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학회지는 76집을 발행했고, 학

술단행본을 총 15권을 발행했다. 그리고 등록된 학회회원이 국내외를 합쳐 250여명이다. 역대회장은 하우봉(1대), 손승철(2,7대), 정재정(3대), 나종우(4대), 오성(5대), 민덕기(6대), 연민수(8, 9대), 이훈(10대), 한문중(11대), 정성일(12대), 남상호(13대), 김동명(14대), 현명철(15대), 김문자(16대) 등으로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로 학회의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 학회지 발간과 학술행사

1993년 10월, 창간호부터 2022년 5월, 제76집까지 총 614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학회지 1집 당 평균 8편의 논문이 수록되었는데, 수록논문을 시대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 표와 같다.

〈학회지 수록논문 시대별 일람〉

시대별	선사	고대	중세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개항기	일제 강점기	현대	기타	합계
편수	4	68	7	67	198	65	101	43	61	614

선사시대에는 고고학에 관한 논문은 없었고, 다만 단군에 관한 논문이 4편 실렸다. 시대별로는 조선후기가 가장 많았고, 일제강점기, 조선전기, 개항기, 현대의 순으로 정리된다. 조선 전후기를 합치면 265편이고, 개항기까지 합치면 330편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이 시기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학회 회원들이 조선시대 전공자들이 많고, 또 1980년대 이후 조선통신사 연구의 붐이나 2002년 이후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의 활동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특히 주제별로 보면, 고대사에서는 백제관련 논문이 가장 많았고, 고구려·신라·발해 관계 논문들이 눈에 띄었다. 고려시대 논문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고, 왜구, 여몽군의 일본침입, 수월관음도에 관한 논문이 한편씩 있는 정도다.

고려시대에 비해 조선시대는 전기의 경우 왜구, 교린체제, 『해동제국기』 등에 관한 주

제들이 많았고, 후기에는 임진왜란과 의병을 비롯하여, 강화교섭, 회담검쇄환사와 통신사, 문위행, 왜관 및 각종 약조, 피로인, 표류민 등의 논문과 함께 울릉도 독도에 관한 논문도 주제로 삼고 있다.

개항기에는 일본의 조선침략과 관련된 주제들이 주류로 이루고 있고, 개화사상이나 수신사관련 주제, 왜관의 변화 등이 많이 다루어졌다.

또한 일제강점기는 역시 일본의 식민정책과 제도, 동화정책 등에 관한 주제가 주류를 이루었다. 반면 의료나 차문화, 오락 등에 관한 생활사나 문화사에 관한 주제들도 주목을 끈다.

해방 이후 현대사 분야에서는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우경화에 그에 따른 역사교과서문제, 독도, 일본군 위안부, 징용 징병에 관한 주제들도 많이 다루어졌다.

이들 수록논문들을 기준이 주관적이지만, 정치·외교·군사·경제·침략(일제)·문화·사상·사료 등으로 분류하면, 역시 외교 분야가 가장 많았고, 양국인의 상호인식이나 경제, 문화, 양국의 정치상황, 기록(사료) 등 다양하게 다루어졌다.

〈학회지 수록논문 분야별 일람〉

분야별	정치	외교	침략 (일제)	사상	군사	경제	문화	기록	기타	합계
편수	68	152	78	62	53	52	47	44	58	614

한편 한일관계사학회에서는 1996년 3월 제1회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 이래, 매년 1회 이상 총 36회에 걸쳐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그 가운데 자체 학술행사가 19회, 국제학술행사가 14회, 워크숍 3회를 개최했는데, 다음과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

〈학술행사 목록〉

1996년 03월 학술심포지엄 : 한·일 양국간 영토인식의 역사적 재검토

1996년 12월 학술심포지엄 : 조선·유구 관계사

1997년 03월 국제학술심포지엄 : 역사적으로 본 한일 양국인의 상호인식

1997년 05월 학술심포지엄 : 한국과 일본 21세기를 위한 역사교육

1999년 04월 학술심포지엄 : 조선시대 표류민을 통해 본 한일관계

2000년 05월 학술심포지엄 : 사상사적 측면에서 본 한일관계

2000년 06월 국제학술심포지엄 : 유길준과 한일관계

2000년 10월 국제학술심포지엄 : 일본의 역사왜곡과 교과서 검정

2001년 06월 창립2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 :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2002년 5월 월드컵공동개최 기념 조선통신사 한·일학술대회

2002년 11월 학술심포지엄 : 한일관계사의 제문제

- 2002년 12월 국제학술심포지엄 : 조선시대 한일관계와 왜관
 2003년 10월 국제학술심포지엄 : 『조선왕조실록』 속의 한국과 일본
 2004년 12월 국제학술심포지엄 : 한일도자문화의 교류양상
 2005년 07월 국제학술심포지엄 : 충숙공(忠肅公) 이에(李藝)의 역사적 재조명
 2005년 10월 국제학술심포지엄 : 동아시아 속에서의 고구려와 왜(倭)
 2006년 11월 학술심포지엄 : 동아시아의 영토와 민족문제
 2007년 12월 국제학술심포지엄 : 전쟁과 기억의 표상으로서의 한일관계
 2008년 06월 하계워크숍 : 일본역사교과서 서술과 문제점
 2010년 07월 하계워크숍 : 한일 역사 속의 '전후처리'
 2011년 08월 학술대회 : 일본 역사교과서의 분석과 역사교육의 실태
 2012년 05월 창립 20주년 국제학술심포지엄 : 朝鮮時代の 韓國과 日本
 2012년 09월 학술심포지엄 : 임란직전 경인통신사행과 귀국보고 재조명
 2014년 06월 학술심포지엄 : 조선의 대외관계와 국경지역 사람들
 2015년 09월 국제심포지엄 : 한일수교 50주년, 상호 이해와 협력을 위한 역사적 재검토
 2015년 10월 학술심포지엄 : 일본의 패전과 한국 -역사교육, 민중의 시점에서-
 2016년 10월 학술심포지엄 : 동아시아 삼국간의 사신(使臣)외교
 2017년 6월 학술심포지엄 : 정유재란과 동아시아
 2017년 8월 국제학술심포지엄 :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
 2018년 10월 학술심포지엄 : 메이지유신과 한일관계의 변용
 2018년 11월 학술심포지엄 : 고대한일관계와 도래인
 2019년 4월 기획심포지엄 : 역사교육과 한일관계사
 2019년 6월 학술회의 : 역사적으로 본 한일양국의 갈등과 화해
 2019년 10월 국제학술회의 : 근세 한일관계의 실상과 허상 -不信과 共存, 戰爭과 平和-
 2020년 10월 학술회의 : 교린의 길, 한일간의 무역을 묻다
 2021년 12월 학술회의 : 해양 해역으로 본 한일관계 : 갈등과 공생의 동아시아
 * 밑줄 친 것은 국제심포지엄임.

학술심포지엄 가운데, 국제학술회의는 특히 10주년과 20주년에는 일본 대외관계사연구회(北島万次)·조선왕조실록윤독회(村井章介)·세종실록연구회(佐伯弘次)와 합동으로 개최하였으며, 개최 후에 단행본 『한일교류와 상극의 역사』, 『조선시대의 한국과 일본-같은 점과 다른점, 교류와 상극의 역사』를 발간했고, 특히 25주년에는 『한일관계사연구의 회고와 전망』을 발간하여 최근까지의 연구사를 정리하여 회고와 전망을 제시했다.

한편 학회에서는 학술심포지엄의 결과와 학회회원들의 저술활동을 돕기 위하여, 경인문화사와 협정을 맺어 2025년까지 『경인 한일관계 연구총서』 100권을 발간하기로 했으며, 현재 84권을 발간했다.

지난 30년간의 학회 활동을 돌이켜보면, 다사다난했다. 특히 상업사를 전공하고 제5대 회장을 역임했던 오성 교수, 왜관을 전공한 김강일 박사(2019년), 왜구사를 전공한 김보한

교수(2021년)가 우리 곁을 떠난 일은 참으로 안타깝다. 학회에서는 이들의 학문적 업적을 기리기 위해 추모단행본을 경인한일관계 연구총서로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신진연구자들의 공로와 연구축진을 위해 학술상을 수여하여 연구의욕을 고무하기도 했다.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이제 학회가 창립한 지 30년, 한세대가 지나가고 있다. 그동안 학회활동에 참여했던 모든 회원들에게 감사하며, 향후 제2세대의 도약을 기대하며 30년의 역사를 간단히 회고하면서 새로운 세대의 설계도를 전망을 해보고 싶다.